평택 '소풍정원' 4가지 色 테마정원
자연 속에 머물며 즐기는 가족 여행지

소풍정원은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4개 섬으로 조성한 9천249㎡ 규모의 습지공원이다. 이 공원에 가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생태를 체험할 수 있다. 소풍정에 오르면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마음을 정화한다. 나무 데크로 된 소풍 산책길을 따라가다 보면 연꽃 습지와 모래 놀이터를 만날 수 있다. 곳곳에 설치된 철새 모양의 솟대를 찾아보는 것 또한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그동안 생활 주변 공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와 상징성 있는 여러 조형물과 자연적인 소재들이 기존의 크고 작은 버드나무와 연못 등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특색 있는 경관을 보여준다.

평택시는 4개 콘셉트로 정원을 꾸몄다. 첫 번째 '이화의 정원'은 전통 담장과 공원부지 내 과수원 배나무를 옮겨와 사라져가는 평택 배꽃의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 다문화와 다양성의 잠재력을 표현한 '무지개정원'에는 무지개색과 둥지 형태의 조형목, 오름데크, 무지개 다리가 보고 체험하는 재미를 더한다.

뫼비우스 띠를 형상화한 공간에 90여 개의 크고 작은 구 형태의 경관조명이 압권인 '빛의 정원'에는 작은 수로(정화의 샘), 시간의 기둥을 통해 상징성과 멋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아담한 규모의 '지지배배정원'에서는 대나무 숲과 소리나눔 파이프를 통해 소통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또 배롱나무, 매화나무, 남천, 금죽 등의 수목과 무늬맥문동, 비비추, 무늬억새 등 지피식물 5만2천여 본을 식재하고, 마사토와 화산석 등 자연적인 포장재로 조성한 오솔길과 녹지공간은 여유와 자연미를 자아낸다.

이처럼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소풍정원은 아이 동반 가족 나들이나 연인들의 오붓한 데이트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는 소풍정원이 진위천의 푸른 자연과 함께하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도록 친환경 여가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